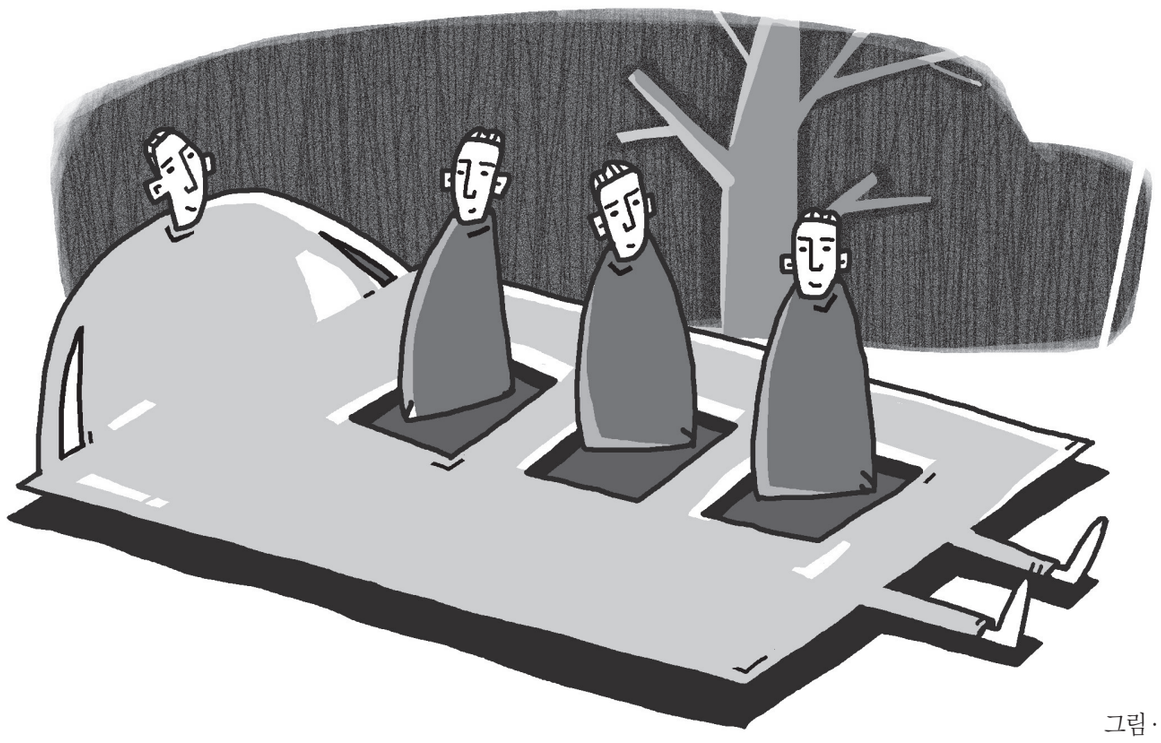
스위치를 누를 줄 알아야 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탑에 관한 것이나 수계에 관한 것이 함께 첨부된 얘깁니다. 수계에 관한 건은, 우리가 항상 마음에서 고장난 거는 마음으로부터 해결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돼서 이 세상에 이렇게 인간으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인간으로 등장을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업을 짓지 않고 현재의 모든 것을 다 녹이면서 생동력 있게 또 걸림 없이 살아나갈 수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수억겁을 천차만별로 모습을 바꿔 가면서 이날까지 진화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등 동물이라는 인간으로서 이렇게 등장을 해서 살고 있는 이 마당에서 가만히 또 생각을 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육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셨습니다. 육통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가 통이 돼서 말입니다, 그 안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의식들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나 하나만이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한마음으로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한 몸뚱이를 한마음으로써 이끌어 나가려면 내 마음 자체를 움죽거려야 이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몸속에서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공부를 그대로 잘하고 나간다면 그 육신 속에 있는 생명들의 의식이 다 그대로 따라 줍니다. 그래서 한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털구멍을 통해서 바로 나가서 조절하고 안에서 모자라는 건 작용을 해서 채워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하면 관세음이 돼 줍니다. 즉 마음을 따라서 의식이 하기 때문에 의식은 보살로 화하고, 다스리는 중심은 바로 부처님으로 화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생각을 하시면 의식들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보살로 화해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내 마음 쓰는 대로 이 육신 속에 있는 의식들도 따르니까, 마음공부들 열심히 해서 그대로 한마음이 돼서 들고 난다면 그것을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의 생명의 의식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천백억 화신으로서 나투신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대로 부처요, 그대로 법신이요, 그대로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이게 전부 수계에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대로 이 몸속에 유전성, 업보성, 세균성, 인과성, 영계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여러분한테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많고 적고 크고 작을 뿐입니다. 오계를 받는 데에 이것을 말을 안 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몸뚱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마음먹는 대로 따라 주게 돼 있으니까, 내가 도둑질을 해야겠다 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내가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일을 해야겠다 하면 그대로 따라 줍니다. 또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부모나 형제들 간에도 '내가 이 세상에 났으니까 내 탓이지 남의 탓을 하면 무엇하랴.' 하고 모두 내 탓으로 돌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대로 지혜가 부풀어져서 바깥으로나 안으로나 편안하게 이끌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생각에 따라서…. '아, 그까짓 술 몇 잔 먹는데 뭐 어때?' 이러면 그대로 되는 거고, 오늘 오계를 받은 뜻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술을 약주로다 한 잔 두 잔 마시는 거는 좋지만 그거 먹으면 몸도 해롭고, 내 몸이 해로우면 식구를 전부 가난케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 몸을 간수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식구들에게 보시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속에서부터 저절로 안 먹게 돼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한두 잔 먹는 것은 어떨 때 좋은 약이 되구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분수에 맞게 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미생물에서부터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바뀌지면서 그 천차만별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진화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어떤 부모가 내 부모 아닐 것이며 어떤 자식이 내 자식 아니겠습니까. 다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습니다. 알고 보면 수억겁을 통해서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됐다, 이게 됐다 저게 됐다 했으니 내 부모 아니 됐던 게 없고 내 자식 아니 됐던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의 내 자식만 내 자식이고 현재의 내 부모만 내 부모가 아니거든요. 한 철을 자식으로 또는 부모로 살면서 수없이 모였다 헤어지고 모였다 헤어져 온 것이,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고 또다시 모일 때에 인연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남의 자식이 잘못하는 걸 보더라도 '아, 전자에 모자랐을 때의 내 모습이로구나.' 하고 바로 내 자식같이 생각하고 내 부모같이 생각한다면, 그 마음이 한울과 같아서 지혜롭기 때문에 천지를 다 쥐고도 남고 굴리고도 남고 덮고도 남고 들고도 남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계를 설하고 여러분이 지키겠다고 하는 그 대답을 아주 떡 떼어 먹듯이 잘하셨는데, 허허, 오계도 못 지킨다면…. 그리고 전자에는 오계를 설하면 "먹지 마라. 하지 마라. 죽이지 마라." 이렇게 그냥 전체 다섯 가지가 다 "마라"로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는 샛문을 틔워 놓지 않았습니까. "술을 마시더라도 분수를 알고 마셔라. 남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건 도둑질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의 거를 훔치라는 게 아니고, 허허허…. 그러니까 살생을 하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에 맡기고 하면 그대로 두 마음이 아니니까, 살리는 사람의 마음이나 살아난 사람의 마음이나 죽는 고기의 마음이나 전부 한마음이 돼서 고기는 고기의 허물을 벗고, 모습을 벗고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이쪽에는 그 고기의 살을 약으로 먹으니 병이 나아서 좋고요. 그렇게 보시를 하는 것은 살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죽이지 마라. 하지 마라.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스스로 분수를 지키면서, 스스로 남을 위하는 게 바로 자기를 위하는 거고 남이 괴로우면 나도 괴로우니까 남을 위해서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줘라 이겁니다. 가정에서 식구들하고도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를 마음으로 벗어야지 만약에 말이나 이론으로 벗으려면 벗어지겠습니까? 그러니 만날 말씀해 드리는 게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입을 빌려 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알고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니게 열심히 하셔야죠. 부처님의 마음도 내 마음이고 부처님의 형상도 내 형상이고 부처님의 법도 내 법입니다. 그렇게 모든 거를 둘 아니게 생각하면서 배우신다면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에 직결되어 있는 줄이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직결돼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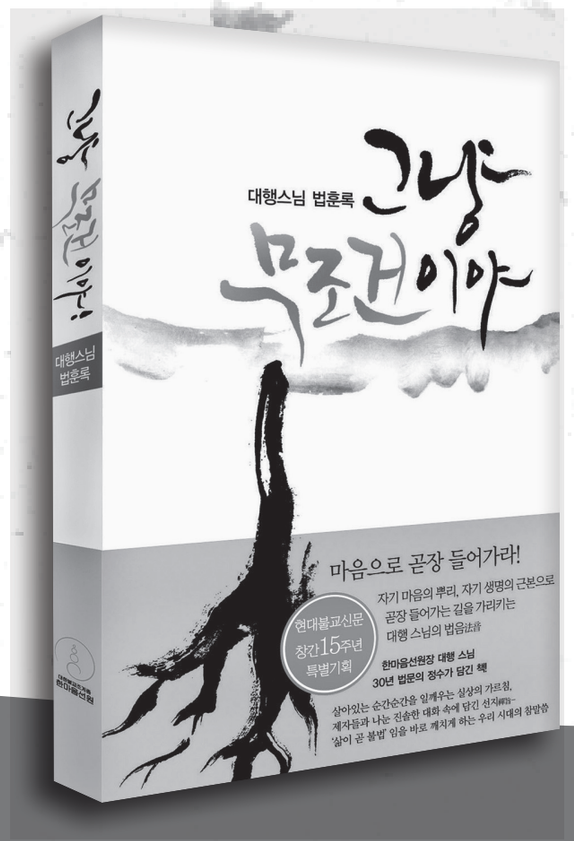
전기를 방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가발전소에서 가설이 돼야 전력이 들어오죠, 가설이 돼야. 그러니까 가설이 다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주 삼천대천세계의 줄과 우리들의 근본의 줄과 이렇게 직결이 돼 있어요. 가설이 돼 있듯이 말입니다. 가설이 돼야 불이 들어오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하니까, 즉 우리들의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단 얘깁니다. 전기 가설은 다 돼 있는데 스위치를 해 놓지 않았으니 이게 불이 생전 가야 들어옵니까? 그걸 누를 줄을 모르고 누르는 거를 해 놓지도 않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계를 받았습니다만 바로 그 스위치를 누를 줄을 알아야 오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 있어야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이익이 갈 수 있고 공덕이 될 수 있고, 자식들을 돌에다 세워 놔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줄 수 있고, 조상을 이끌어서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대로, 오늘 오계를 받고 그대로 지키면서 공부하는 데

☞ 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